

1995년도 추계 총회 및 연구 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대구의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1995년도 추계 총회 및 연구 논문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깨끗한 캠퍼스와 스티로폴을 이용해 만든 포스터관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행사에는 약 70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영롱한 가을 날씨 속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초청특별강연, 총회 및 간담회가 6일에 있었고, 6일과 7일 이틀동안 9개 발표회장에서 연구 논문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3편의 초청 특별 강연과 12편의 특별 강연 및 2편의 학회상 수상 기념 강연이 있었고, 102편의 구두 발표와 212편의 포스터 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구 논문 발표회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예년과는 달리, 연구책임자들에게 직접 연구 결과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구두 발표 시간을 종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연구 발표가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총회석상에서 김정엽회장님께서 연구책임자에 의한 논문 발표가 관행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로 인해 포스터 발표 시간(70분)이 부족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총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구두 발표 시간과 포스터 발표 시간의 배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전시된 포스터들은 논문 내용도 물론이고, 포스터의 양식도 아주 세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구두 논문 발표만을 선호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포스터 논문 발표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년에 비해 발표회장을 1개 더 늘려 9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시간의 연장으로 부득이 한 연구 그룹 당 한편의 구두 발표만으로 개한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논문들이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구두 발표에서 포스터 발표로 임의 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의 구두 발표가 누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았던 논문이 구두 발표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금번 행사를 잘 준비해준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노고와 계명대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는데, 특히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화학공학과 학생들을 다독거리며 귀중한 시간들을 희생한 하기룡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직간사 하창식〉

